MAY 2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41 1983년 5월2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y 25,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 기독교 폭발적 성장

신학대학만도 350여개…「월·스트릿·저널」보도

한국의 교회와 성당은 주일마다 초만원을 이뤄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지적했다.

이 신문의 레너기자가 서울발로 한국교계에 관한 12일자 기사는 68개의 교파로 구성된 한국 기독교의 신도수는 3,800만 한국 총인구중 25%에 달해 25년전의 5%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머지않아 불교세력에 앞설것으로 교역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기독교는 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서울순복음교회의 조용기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회는 신학적, 정치적, 현실적문제에 수많은 교파의 의견이 엇갈려 공통된 견해가 없으며, 한국의 교회는 기독교적인것보다는 한국적인 것이며, 기독교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파는 10년내에 교세를 배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350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이 같은 교세신장으로 한국교계는 선교사를 방글라데쉬, 인도, 미국등지에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독교의 급속한 신장의 원인으로 국가의 안보에 대한 불안등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는 추세라든가, 서양문명의 상징인 기독교를 통한 사회개혁의 동조자로, 혹은 「반정부적인 민주세력」으로 자처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정부적인 과격분자」는 기독교인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에 무관하고 친정부적인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인은 「자기교회, 자기의 목사」등 개인적인 것에 집착해 모든 이웃, 모든 기독교인과 같은 연대적인 협제애가 없다고 25년동안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활약해온 진·메류스목사는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같은 신도들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어떤 목사는 설교중 "이웃교회는 교직자에게 새 자동차를 마련해 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메류스선교사가 말한것으로 전했다.

다른 또 하나의 추세는 조용기목사와 같이 교회를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어떤 비평가는 이러한 물질적 현상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샤머니즘(Shamanism)의 영향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기독교의 질적문제, 즉 기독교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선교사인 메류스씨를 비롯, 여러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감리교회를 세우고 신도수를 120명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김영언목사는 "대다수 한국교회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기목사는 "질적인 것은 양적인 것에서 나온다"며, "한국의 기독교는 질적인 것을 찾기에는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종교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성직자들중에는 한국 기독교의 팽창을, 서구에서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의 활력을 아시아에서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카톨릭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의 말을 이용하여 이 기사는 끝을 맺고 있다.

—알립니다—

매주 수요일자로 발행되던 〈주간한국〉이 이번주에는 월요일 빅토리아·데이 본사 휴무로 인해 목요일(26일)자로 발행됩니다.

회관이전비 5,500달러 약정

오토·바디·숍 경영하는 이영두씨

한인회관 확장이전을 위한 범교민적 모금운동에 자동차 바디·숍을 경영하는 한 교포가 자신의 재력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5,500달러를 약정, 화제가 되고 있다.

E & J 오토바디 대표인 이영두씨는 20일 본사를 내방, 이날자 모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기부금 약정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에대한 경위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17일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내방한 조한철모금위원장의 간청으로 3,000달러정도의 약정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모금위측이 좀 더 회사하여 5,500달러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 이는 거액이므로 신중히 결정, 차후 전화로 확답하겠다고 밝혔을뿐인데 모 신문에 5,500달러 약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는 것.

이씨는 겨울동안의 불황과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로 타격받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모금위측의 일방적 발표로 이미 "엎지러진 물이 되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덜쓰고 절약해 불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 & J 오토바디 대표 이영두씨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온타리오·플레이스에서의 불꽃놀이……23일 빅토리아·데이를 맞아 토론토의 수개 공원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렸다. 담요와 간이의자를 갖고 자녀들과 함께 온타리오·플레이스나 이토비콕의 센테니얼·팍에서 불꽃놀이를 즐긴 가족들은 귀가길에 몰린 차량들로 혼이 나기도 했다.

캐나다공군기 에어쇼도중 추락

"과부제조기" 별명붙은 스타·파이터요격기

(프랭크·푸르트)캐나다공군의 CF-104 스타·파이터(Starfighter)기 1대가 22일 서독 프랑크푸르트 남서쪽 라이마인공군기지 상공에서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공중묘기쇼도중 추락, 목사1가족 5명이 몰살했다.

추락기 조종사 앨런·스티븐슨(27)은 추락직전 낙하산으로 탈출, 죽음을 면했다.

나토공군의 연례행사인 이날 에어쇼에서 스타·파이터기 5대가 1조가 되어 저공비행표기를 시범하던 중, 조장이 탄 비행기가 방향을 잃고 불길에 싸여 하이웨이 난간에 추락했다.

추락기체의 파편으로 승용차 4대가 완파되고 40여대가 파손됐다. 이날 에어쇼는 10만여명이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캐나다공군기, 스타·파이더 총239대중 약 절반이 추락,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 공군대변인은 이날 캐나다 조사단이 사고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히면서, 사고원인은 2주일후에나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부터 캐나다공군기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온 스타·파이터기는 몬트리얼의 캐나다데어(Canadair)사의 라이선스로 제조된 단발제트 요격기이며, 항속거리는 시속 1,500마일이다.

이 비행기의 약 절반이 추락사고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공군은 80년대 후반 새로 CF-18 호넷츠(Hornets)가 도입될때까지는 계속 스타·파이더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이 전투기는 최근에도 알버타의 콜드 레익·캐나다공군기지에서 훈련도중 원인모르게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

현재 남아있는 80대의 스타·파이터기는 대부분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대생 4명구속

반정부전단 살포혐의

(서울16일=외신)경찰은 지난주 2백50장의 반정부 전단을 뿌린 서울대학교 학생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남자1명, 여자3명등 4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13일 서울대학교 교정에 2백50장의 반정부 전단을 살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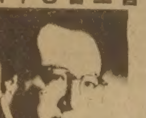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 C.A.
Chartered Accountant · Comptable Agrée

강화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 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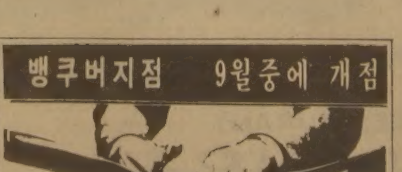
은하 보석
관공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을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재소지입사
오메가시계
4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5/11부터)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한인신용조합		
30일	7.25%		6.75%
90일	7.50%		7.00%
180일	7.75%	8.25%	7.25%
365일	8.50%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교민을 위한 교민의 은행

뱅쿠버지점 9월중에 개점

9월에는 뱅쿠버지점을 개설하여 캐나다전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안내
- 체킹구좌업무〈개인, 기업〉
-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 외환송금업무〈전신, 우편송금〉
- 수출입〈신용장 개설, 통지, 매입〉
- 대출업무〈개인융자, 사업자금〉
- 모기이지〈주택구입, 부동산투자〉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하고 保証하는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C.D.I.C. 가입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블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뱅쿠버지점
ONE BENTALL CENTER #760
505 BURRARD ST. VANCOUVER
(임시) 683-1820

동부조에서 수위

토론토·불루제이스 22승16패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23일 현재 아메리칸 리그(AL) 동부조에서 22승 16패를 기록, 수위를 달리고 있다.

23일 엑스비션 스태디움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대전에서 불루제이스가 4-0으로 승리, 금년도 시즌오픈 이래 가장 많은 관중인 35,000여 팬들을 열광시켰다.

20일부터 열린 발티모어 오리올즈와의 3차전에서 7-5, 6-0, 5-0으로 셧아웃시킨 불루제이스는 7년의 팀 역사상 처음으로 4연속승과, 3연속 무실점의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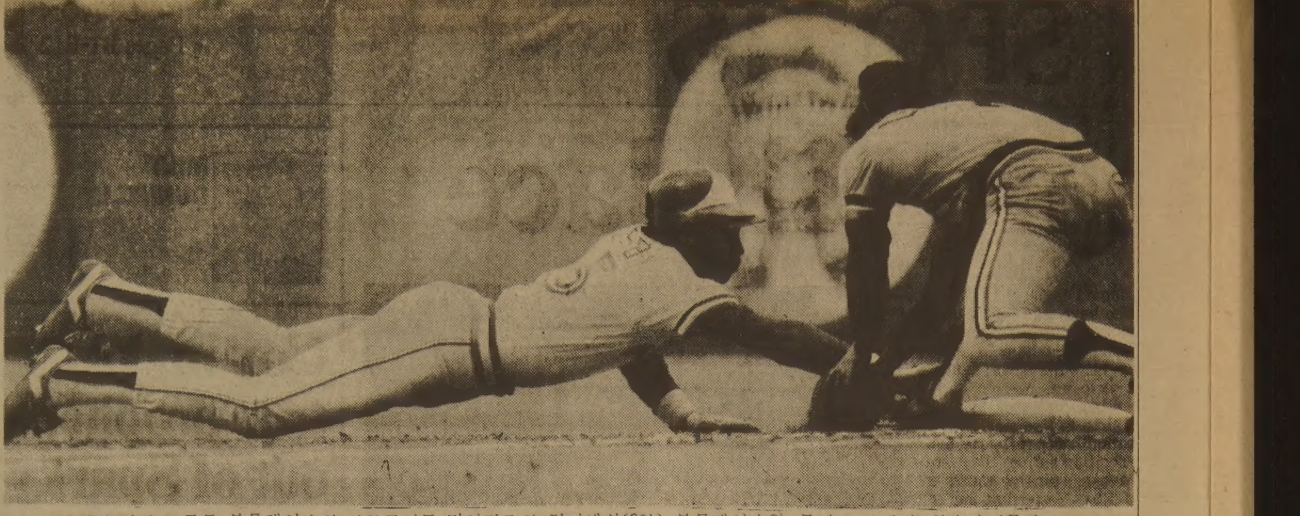
특히 에이스인 데이브·스티브투수와 짐·클랜시투수가 역투를 보여 팀승리에 공헌했다.

5월들어 14게임에 승리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불루제이스는 24일 밤의 디트로이트와의 재 대결에서 또 한번의 승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포수인 어니·휘트 선수는 선수생활 최초로 한게임에서 2회의 홈런을 기록하는 행운도 얻었다.

현재 AL에 연속게임승리 기록은 1974년 발티모어 오리올즈 5회 승리이며, 내셔날 리그는 1903년 피츠비그 파이럿이 세운 6회 연속승리이다.

한편 불루제이스의 데이브·스티브투수는 동팀 8회 승리에 수훈을 세워 AL이 뽑는 금주의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23일 열린 토론토 불루제이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경기에서(6회) 불루제이스의 로이드·모제비 선수가 1루에 슬라이드를 하자 타이거즈의 릭·리치 선수가 택 아웃 시키 고 있다. 이 경기에서 불루제이스는 4-0으로 완승했다.

수업료 40% 인상

토론토대학, 외국유학생에 대해

토론토대학교는 외국인학생이 등록금을 40% 인상키로 결정했다.

외국인 학생 약12명과 캐나다 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원들의 항의시위가 있는 가운데 19일 이같이 발표한 대학 정책위는 주정부의 보조가 충분치 못하므로 외국인 등록금 인상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학정책위는 이번 인상으로 약 1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약90명의 직원이 더 감원돼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토론토대학은 예산부족으로 내년에 65명의 교수와 110명의 직원을 감원하게 됐다.

인상전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전공과목별로 년 3,5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였으나, 40%인상으로 내년에는 5,000달러 내지 9,800달러 폭이 된다.

불법체류자 사면확정

상원, 이민법개정안 18일 최종표결

(외신종합)이민법 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삭제하려는 제시·헬름스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의 제안은 76대21로 부결시켜 외국인 사면의 길을 터놓았다.

상원은 또한 불법외국인의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첫번째 위반은 1천달러로 시작, 반복되면 6개월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노동자 일시고용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투자이민에 관한 25만달러 이상을 투입, 시민4명을 고용할 경우 영주권을 주자는 특별순위 이민조항은 51대46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토론중 헬름스의원은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으나, 상원이민법안 제안자인 앨란·심슨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원의 공화당원내 총무인 하워드·베이커의원은 레이건행정부가 지지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17일밤 마지막 손질해서 18일 늦게 투표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이민법안은 80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신분을 주며, 77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해온 불법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도록 돼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39>

노파의 증언 ⑩

"中國人 전과자중심으로 정보 수집해봐"

『놈은 지금 국내에 있어。아직 빠져 나가지 못했어! 놈을 꼭 잡아야 해!』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읍니다。한 가지는 놈의 물건을 노리고 단독으로 입국했을 경우입니다。이 경우 놈은어디까지나 혼자이기 때문에 지원세력이 없을 겁니다。오히려 조직에 빼앗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놈을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놈은 그러니까 경찰과 조직 양쪽에서 추적을 받고 있는 셈이 되겠지요。』

『음、그래요…。』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었다。

마인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다음 한 가지는 놈이 지원세력을 등에 업고 입국했을 가능성입니다。이 경우 조직에서 그를 고용했을 것이고、그는 물건을 찾아주는 댓가로 아마 고액을 받기로 되어있을 겁니다。그런데 이런 점이 얼른 생각납니다。그는 이름난 킬러입니다。그는 마약과는 관계 없는 인물입니다。그의 직업은 살인입니다。청부살인이 그의 전문이지 마약을 노린다거나 그것을 찾는 일이 직업이 아닙니다。따라서 그가 마약을 좇아 잠입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저는 쭉 이문제를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할수록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건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 놈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돈만 준다면 뭣이라도 할 놈이야。』

대머리가 쏘아붙였다。

마인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그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그럼 뭐지?』

『국제적인 킬러라면 그 나름대로 주관이 서있고 외도같은 것은 하지 않을겁니다。돈 많이 준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놈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군。』

朴男 그림

『저는 그자를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는 잘라 말했다。

대머리는 이마에 번진 땀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호의적이 아니란 말인가?』

『호의적이라기보다 호기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놈을 체포해야 해。사살할 수 있으면 사살해도 좋다。』

마인은 숨을 들이켰다。그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대머리가 말을 이었다。

『두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느쪽인가?』

『후자입니다。놈이 혼자서 마약을 노리고 달려들었다고 보고싶지 않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탁을 받고 그것을 찾아나섰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세력이 있겠군?』

『네、그렇게 봐야겠죠。그들에게 물건을 넘기고 몸만 빠져나갈지、아니면 그들의 지원하게 물건을 가지고 빠져 나갈지 지금 단정을 내릴 수는 없읍니다。』

『그럼 어떡 한다?』

『지원세력을 찾아나서면 그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잡힐지 모릅니다。중국인 조직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인 전과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해봐。아니、그렇게 아니라 중국인들을 모두 체크해?』

유학생 체류조건 완화키로

상원, 개정이민법안 심의서 합의

(워싱턴17일=외신)미상원은 16일 교육을 마친 외국 유학생들의 미국체류조건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날 이민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한 상원은 또 3천5백만달러의 재정을 책정, 1980년도의 쿠바 난민입국등과 같은 긴급 이민사태발생시 각 주마다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상원은 17일 하오 이민법 개정안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체류 조건 완화는 잔·댄포스(공화·미조리주)의원과, 대니엘·모이니핸(민주·뉴욕)의원이 공동제안한 것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외국 유학생들의 미국체류 허용 쿼터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을 마친 외국 유학생들은 대학, 기업등의 과학분야에 취업하지 않는한 2년안에 귀국토록 하고 있다.

상원이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 체류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현재 연간6천명으로 제한된 외국유학생 미국체류 상한선이 폐지되며, 경제, 경영학등을 포함,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전공과목도 확대되게 된다.

태권도도장 설립

뱅쿠버 하기성형제

(뱅쿠버)뱅쿠버시내 킹스웨이 2127번지에 하기성(7단), 하기승(5단) 형제가 태권도 도장을 설립, 7일 개장했다.

개관식에는 전정남한인회장, 유영호한국일보지사장등의 외빈이 참석 축하했으며, 하기성사범은 5방격파, 옆차기, 송판격파, 높이차기등의 시범도 보였다.

빈아파트 증가

메트로·토론토 일대

토론토지역의 빈아파트가 지난 18개월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캐나다주택모기지회사(CMHC)는 오크빌, 뉴마켓, 에이작스까지 포함하는 토론토지역의 빈아파트율이 지난 81년 10월의 0.3%에서 금년 4월 1.2%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빈아파트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낮은 이자율과 정부의 주택장만장려 프로그램으로 자기집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CMHC는 분석했다.

이종욱씨 특상

제3회 한인친선낚시대회

한인낚시협회주최 제3회 한인친선낚시대회가 20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벨우드·콘서베이션·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3.5파운드의 파이크를 잡아 특등상을 탄 이종욱씨는 낚시협회 회장 트로피와 상금 $300달러를 받았다.

이날 파이크대회의 입상자와 무게는 다음과 같다.

1등 최남해(3.25Lb)
2등 이강복(3.00Lb)
3등 오회선(2.95Lb)
4등 안규진(2.60Lb)
5등 이충석(2.50Lb)
노익장상 이택선(63세·2Lb)
부녀상 최영해
아동상 H·헨리·구

◆특등상을 탄 이종욱씨(오른쪽)와 낚시협회 이장관 회장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독일학생 서울서 자살

"지체부자유아 돕고싶다" 유서

(서울21일=연합)서울시내 메트로호텔에서 독일학생 1명이 목을 메달고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서울시경은 27살 베르트램·빈크직군의 시체가 동 호텔 객실 708호의 화장실에서 이날 20일하오2시경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유서와 함께 현금 89만2천원이 봉투에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이돈이 한국의 지체부자유아를 돕는데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은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태윤씨를 찾습니다"

B.C.주에 살고있는 킴블씨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내누스·베이(Nanoose Bay)에 살고 있는 버나드·킴블(Beynard Kimble)씨가 13년전 친분을 나누던 교민 태윤(Tae Yoon)씨를 찾고 있다.

당시 1405 퀸빅토리아파크(Queen Victoria Park Ave)론파(Lorne Park·미시사가 서쪽 15마일지점)에 살고 있던 킴블씨는 1970년 가을 B.C주로 이사하면서 태윤씨의 연락처를 잊어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하소연.

킴블씨는 태윤씨가 당시 152 스트라스코나(Strathcona Ave.)에 거처를 두었고 태윤씨는 한인연합교회에서 결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킴블씨의 연락처는,
P.O.Box 119
Nanose Bay,
Britsh Columbia
V0R 2R0 나
전화 (604)468-9943.

CBC, 중계권획득

L.A. 올림픽

CBC는 내년 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열릴 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획득했다. 중계료는 3백만달러.

CBC라디오와 TV방송은 영·불어로 올림픽을 중계한다.

—바로 잡습니다—

5월20일자 본지 1면 머릿기사 "갈보리 한인자선재단 양로원 건설 독자 추진중"기사에서 일부 귀절이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 두번째 문장중 "안병한사무장"은 안병찬총무의 잘못이며, 동 재단 집행부 명칭중 국장은 이사의 잘못이며,

이사명단중 신성전은 신승준으로 바로 잡습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진짜 미식가는
KOREA HOUSE를
애용합니다.

일본요리 취급개시
(생선회·김초밥·생선초밥·회덮밥·돈부리등)
□도시락주문(개인·단체)
□스시바 곧 OPEN.

★최고의 진미
★저렴한 가격

RESTAURANT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몬트리얼 소식

지국장 : 정관성

지국 연락처
Mr. Kwan S. Chung
6715 Pl. Villon
Brossad P.Q.
J4W 2V4
(514)672-8399(R)

2세교육을 위한 워크숍

14일 한인연합교회주최…최경자목사 초청

한인연합교회(목사 배한국)에서는 지난 14일 저녁8시10분 120여명의 교민이 모인 가운데 여신우회(회장 이숙경) 주최로 2세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다. 토론토에 있는 최경자목사를 초청한 이날 워크숍에는 7~8명씩 1조를 이루어 약30분간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사항,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사항, 문제점들을 토의, 조장들이 각조의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사항중 간섭을 말아달라는 사항이 으뜸을 차지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배워줄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어, 불어를 배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편 자녀들은 학교성적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주지 말기를 바랐으며, 뜻있는 대화, 주말에 공동생활, 부모의 서구사회적응을 바랐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줄 것, 안정된 직업, 즉 전문직 공부를 해줄 것등을 바랐다.

그리고 부모들은 신앙심을 가져주고 유혹이나 저속한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올바를 길로 성장해 주고 순종해 주기를 바랐다.

한편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중에는 부모자녀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이 으뜸이었다. 자녀의 결혼관이 그다음이었으며, 자녀에게 한국말을 배워주자는데 비해 영어든 불어든 한국어든 통일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문제도 대두됐다.

또한 언어와 풍습에서 오는 문제도 심각히 대두됐으며 부모들이 이민와서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그냥 노출하는데서 오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부모들이 바라는 안정된 직업이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된 직업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16살~20살의 자녀들을 갖고 있는 그룹에서는 자녀들의 요구조건이 매너를 존중해 달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달라 였으며 학생들만이 구성된 그룹에서는 넓은 이해심을 갖고 새로운 세대를 보아주며 자녀들이 하는 일을 믿어 줄것과 다른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외에 국제결혼을 반대, 좋은 성적, 좋은 친구를 얻기를 바랐다. 또한 원만한 인격자, 인간다운 인간이 돼주었으면 했으며 TV를 너무 보지 마라 하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요구조건도 있었다.

모든 그룹리더들이 문제점들을 설명한 후 최경자목사는 자녀들에게는 염려, 존경, 책임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야 한다는 외에 몇가지 코멘트를 하고 11시경 워크숍을 마쳤다.

노인잔치 개최

15일 몬트리얼노장회

몬트리얼 노장회(회장 방용섭)의 준회원(부모를 모시고 있는 회원)들은 지난 15일 7시 노인잔치를 베풀었다. 노장회 회원 43명을 비롯, 약150명이 모여 준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등을 나누었다.

한인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이채화선생지도로 약1시간에 걸쳐 고전무용을 배웠으며 노래자랑도 했고 푸짐한 선물들이 노인분들에게 증정됐다.

준회원들이 해마다 열어드리는 이 모임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특히 노장회 총무로 있는 노형철씨와 몇 젊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주 화려하고 푸짐한 파티가 됐다. 많은 준회원 및 독지가들의 헌금, 물품등이 넘쳐 모든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500여불을 노인회장에게 전달, 노인회사업에 써줄 것을 부탁했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연재소설) 혼돈 ㉘

글 이대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나는 캐나다에 온 이후로 종종 히치하이크를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참으로 편리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히치하이크를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어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차도쪽으로 다가가 아까 보았던 사내아이와 같이 엄지손가락을 펴고 팔을 들었다. 쑥스럽고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며 한참동안이나 서있어도 차들은 쌩쌩 지나가기만 할 뿐, 내 앞에 와서 서는 차는 하나도 없었다. 차츰 호기심이 식어가고,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열대의 차만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내 앞을 지나가는 차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일곱…."

거의 희망을 갖지 않고 숫자를 세어가던 내 앞에 엔진소리가 요란한 노란색의 차가 급정거를 하며 문이 열렸다.

"섰구나, 일곱번째의 차가 섰구나."

나는 신이 나서 뛰어가 우선 차를 타고 보았다. 차안에는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쿵쿵 울리고 있었고, 장발을 한 세명의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지껄이며 히히덕거렸다.

"어디로 가세요?"

"24번지 큰 스트리트."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이 옆에 앉은 나에게 방향을 묻자, 나는 서툰 영어로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내 대답이 끝난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과 뒷좌석에 앉은 두 청년이 뭐라고 지껄였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차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다. 나는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혹시 내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나 해서

"나는 24번지 큰 스트리트로 가야돼요."

하고 큰소리로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번 더 일러주었다. 그러나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릴 뿐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차가 인가가 드문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참고 있어 보자고 기다리던 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뒤에 앉았던 두 청년이 뒤에서 내몸을 붙들며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겁에 질려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내 소리는 손으로 틀어막힌 입속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내가 거의 기진해서 힘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차가 멈추고, 청년들이 나를 끌어냈다. 넓고 나무가 많은 것으로 봐서 공원인 것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들이 하는대로 몸을 맡겨버렸다. 나를 차에서 끌어내려 숲속으로 끌고온 그들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내 온몸에 싸늘한 잔디의 촉감을 느끼며 추위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씩하나씩 나를 겁탈하기 시작했다. 가을하늘의 외로운 별빛이 내 눈의 눈물에 반사되어 십자의 빛을 내며 아롱거렸다.

◆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잔디밭을 기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기어도 목소리는 입밖을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우중충한 모습으로 무섭게 서있는 나무와 아득하게 넓은 잔디밭 외에는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공포와 추위로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손가락을 잔디밭에 박아 몸을 끌어당겼다. 손에는 잔디가 섞인 한 움큼의 흙이 쥐어질 뿐, 내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조급하고 안달이 난 나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내 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갔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 나는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고, 희망도 없이 막막한 잔디밭을 바라다 보았다.

멀리서 움직이는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여럿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하며 빠른 속도로 나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었다.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나는 그 불빛이 내 비명소리를 듣고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예요, 여기!"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한번 더 지르고는 쓰러져 버렸다. 누군가가 내 이마를 톡톡치며 나를 깨웠다. 하얀옷을 입은 간호원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깨어났군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병원이예요."

나는 잠시 꿈과 현실을 착각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를 불러올 테니 가만히 계세요."

간호원의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왜 병원에 누워있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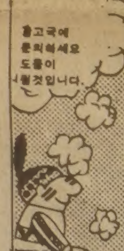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네명의 양놈들에게 공원같은 곳에 끌려가서 치욕을 당한 기억이 어슴프레 하게 떠올랐다. 간호원이 낯선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다.

"이 주사가 끝나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읍니다."

간호원은 링겔주사기의 조절기를 만지작거리며 사무적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다. (계속)

숲속으로 끌고온 그들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축
번 영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동궁식당
1416 VICTORIA PK. AVE.
☎757·6334

종교계소식

교계소식 533-2361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 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牧師 永住權발급브레이크

허위서류많아 한인教役者 심사강화

작년 11件발견, 계류중인것 80%가 가짜…駐韓미대사관서 진위여부 확인도

한국목사들의 영주권발급에 대한 이민국서류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와졌다. 서류심사가 강화된 주원인은 그동안 허위서류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이민국관계자가 밝혔다.

移民局관계자 서류심사기간 9~12개월로 늦어져

플랜더스 LA이민국공보담당관은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결과 무려 11건이 허위(Spot Check)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당시 계류중인 서류중 80%가 거짓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후 심사가 한층강화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영주권신청을 위해서 목사들은 정식 임명을 받고 2년간 목회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심사결과 목사가 아니거나 경험도 없고 또 풀타임으로 목회도 하고있지 않는 케이스가 여러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갑자기 허위사건이 증대됨에 따라 이민국은 최근 서류심사를 일층강화, 종전에는 3개월정도 걸리던것이 이제는 9~12개월로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단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이민국은 영주권발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들을 추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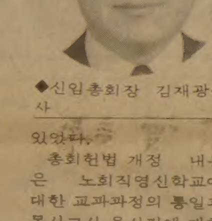
한편 이민관계 한변호사는 『이민국은 최근 주한미대사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허위사실이 드러나도 검찰에 기소되는 예는 드물고 본국으로 추방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각국의 교역자가 영주권신청을 하지만 이사건으로 한국교역자에 대해서만 철저히 검사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인장로회총회 성황

북미 한인장로교회대표 56명참석

제8차 미주한인장로회(통합)총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영락교회와 볼톤 컨퍼런스 센타(Bolton Conference Centre)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의 각 교회 대표 56명과 본국한국장로교총회에서 파송한 대표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총회장에 김재광목사(토론토영락교회 담임)를 선출하고 8명의 목사후보생의 고시가 실시됐으며 (토론토는 2명) 약간의 총회헌법개정이 있었다.



◆신임총회장 김재광목사

총회헌법 개정 내용은 노회직영신학교에 대한 교과과정의 통일과 목사고시 응시자에 대한 연한조정등이다.

현재 동회에 가입한 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96개 교회가 소속하고 있고 차기총회는 내년 5월 미동부지역에서 개최될 예정.

▲굶주림 — 온두라스의 피난민캠프에서 한니카라과 피난민소녀가 빈식기를 들고 울고있다. (AP)

토요강좌회 모임

28일 인온더파크

토요강좌회는 5월28일 오후6시30분 인온더파크(Inn on the Park)에서 강연과 좌담의 밤을 갖는다.

「기독교도와 막스주의자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의 강사는 강위조목사이다.

강목사는 콜럼비아대학, 세인트·존스대학을 졸업하고 콘코디아신학교, 시카고대학등에 수학, 신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위드버그 신학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의 회비는 디너를 포함하여 20달러이다.

장소관계로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데 희망자는 전화 : 925—3259, 3250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하규목사 취임예배

6월5일 임마누엘연합교회

임마누엘연합교회(63 Dunblane Ave, Willodale소재)는 오는 6월5일(일) 오후4시 동교회 박하규목사의 취임예배를 갖는다.

박목사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연합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약 10년간 백인교회에서 시무, 최근까지 사스카추안에서 목회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거행

조계종 불광사와 한국불교회 선련사

불기 252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초파일 봉축행사가 토론토시내 2개 교민사찰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조계종 불광사(주지 석광옥)는 20일 봉축행사와 아울러 불광사 개원6주년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밤늦게 까지 진행된 봉축행사는 불공, 만발공양, 향공양, 꽃공양, 관등식과 대중공양등의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1일 22일 양일간 봉축법요식과 기념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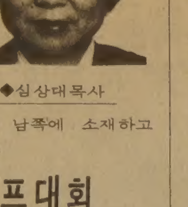
선련사 행사는 헌공예식, 강연, 연등식, 참선정진, 좌선교실, 문화의 밤과 「부처님 오신날 바자회」, 어린이 연날리기 대회등이 포함되었다.

심상대목사 안수축하예배

6월12일 펜티코스탈교회

연합한인 펜타코스탈교회는 오는 6월12일(일) 오후3시 동교회 목회자인 심상대여목사의 안수축하(Ministrial License for Women) 예배를 갖는다.

교회개척이후 3년간 전도사로 목회해 오던 심목사는 지난 5월 온타리오 런던에서 열렸던 펜타코스탈 서부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심상대목사

동 교회 주소는 300 Queens Dr. 이며 401 Jane St. 약간 남쪽에 소재하고 있다.

천주교주최 골프대회

6월1일 글렌·이글 골프클럽

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회장 홍진표)이 주최하는 제7회 교민친선골프대회가 오는 6월1일 12시 글렌·이글골프클럽(Glen Eagle)에서 열린다.

토론토 한인사회 골프대회중 가장 전통이 있는 대회중의 하나인 한맘골프대회는 매년 참가자들이 늘어 금년대회는 선착순 72명으로 인원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시상은 그로스챔피온, 네트챔피온을 비롯한 여성 챔피온, 홀인원, 어네스트·리어리스트, 롱게스트, 드라이브상, 행운권추첨등이며, 금년도 홀인원의 부상은 세계일주 항공표이다.

참가비는 디너포함 35달러이며, 연락전화는 751—9236, 282—5387, 671—4555, 298—3584등이다.

◇기독교문화는 한국토착화라는 명제를 안고있다. 갓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고해서 한국그리스도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어떻게 한국인의 정신에 와서 닿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西歐의 外形的답습엔 限界

「宗教의 實體」 內面 정립을

基督教문화

(서울) 한국기독교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신자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기독교문화는 숫자만큼 우리의 민족의식 속에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을까.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문화신학자 폴·틸리히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한국기독교는 우리민족문화의 실체가 되지않고서 더이상 발전하기 힘들다. 내년이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땅에 들어온지 각각 2백년과 1백년이 된다. 2백주년, 1백주년의 사업과 행사와 운동과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속 깊이 기독교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의 문제로 모아져 있다.

요즘 민족복음화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기독교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민족복음화는 외형적 전도(혹자는 푸닥거리라고 서슴없이 지칭하기도 한다) 일뿐이지 결단코 민족의 심층 속에 파고들어가 민족정신을 진작시키고 새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창조는 될 수 없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적인 형식에다 기독교복음의 내용을 입히는 작업을 외형적으로나마 기독교문화로 정의를 내리는 김영한(숭전대) 교수는 기독교문화를 형성한다 함은 결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기독교복음이 서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양문화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양문화의 매락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초기에는 서양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자본주의와 같은 좋은 문화도 받아들였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주의, 기능위주에 비롯된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고도의 이혼율을 빚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사회가 가치관의 혼돈양상을 빚었다.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문화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말, 글, 풍습, 관례, 사고방식, 의식주, 생활방식, 건축, 회화, 조형문학, 음악, 예술 각분야에서 한국의 고유성을 찾아내 소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독교복음을 우리의 고유한 풍습과 사고방식으로 소화하는 내면화 단계를 거친 다음 다시 외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는 고정돼 있고 기독교복음은 변화하고 있다는 도식화를 매우 위험하게 보고있는 문익환 목사는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바탕을 떠나서 문화와 복음을 관념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민족이 겪는 아픔과 몸부림속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복음이 생동하기 때문에 농민과 근로자등 국민다수로부터 동떨어진 가운데 기독교문화를 형성한다는 인상을 씻어버리자는게 문목사의 주장이다.

20세기 전반의 가장 그리스도적인 그림으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꼽는 사람이 많다. 그 시대의 아픔과 몸부림이 잘 집약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갓쓰고 두루마기를 입혀 놓으면 그것이 한국적 예수가 되느냐? 피카소나 고흐나 샤갈은 그리스도에 자기나라의 옷을 입혀 그리지 않았다. 바보스럽든 고통스럽든간에 그들이 그린 예수의 얼굴과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홍종명화백은 설명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속에서 물량주의와 상업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감이 있다. 산간벽촌이나 농어민의 초라한 집과 대도시 주변에 있는 슬럼들을 외면한채 호화판 대형교회가 서구의 모형을 그대로 모방하여 들어서고 있다.

일부 개신교의 경우 헌금도 기복심리가 주요 동기가 되기 일쑤이며, 제사에 대해서도 우상숭배라는 단호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가족단위의 제사의식을 그리스도신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가족의 단합과 조상에 대한 효를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이끌도록 하고 있다.

2백주년 사목회의 연수회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는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 거론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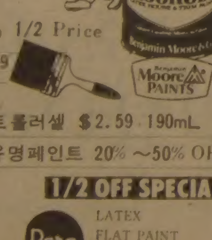
가톨릭신학대교수인 정의채신부는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여 창조주인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뿌리를 박고 한국문화라는 토양의 모든 자양분을 흡수하여 소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인간적 넓이를 지닌 인격자라고 정의한다. 신앙의 누룩으로 우리의 심성과 문화안에 있는 모든것을 그리스도화하여 현대적 소명을 다 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전반에 걸쳐 미미하고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을 향해 달음질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할 가치관 설정에 바른 등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김영한교수는 거듭 반성하고 있다.

기독교문화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자유민주정신, 인간성의 존중, 법질서와 사회규범 준수, 교육기관과 기업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등 여러중요한 가치관 설정에 한국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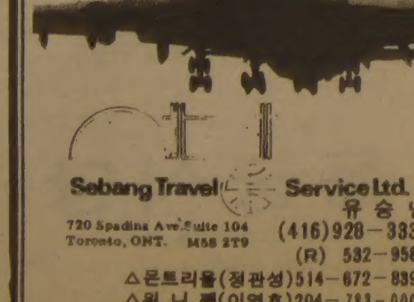
또 교회단위로는 미사의식의 표현을 좀 더 한국인들의 심성에 와 닿을수 있게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제사의식을 새롭게 해석하여 전승되도록 사회조사를 통한 연구과제로 삼고있음을 다 아는 일이다.

GRAND OPENING
특별세일
특별세일기간
5월18일 ~6월4일



50mm Bristle Brush 1/2 Price
$1.49
페인트롤러셀 $2.59 190mL
각종유명페인트 20% ~50% OFF
1/2 OFF SPECIAL
Para LATEX FLAT PAINT 4L $6.95
●무료견적●
Sun Paint & Wallpaper
619 McCowan Rd. and Lawrence Ave. ☎438 6965
대표 · 이광순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 · 미국 · 캐나다 · 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 승 빈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 니 펙(이영호)204—783—0007

KANATA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 · 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5—6월 Y영어
연구반모임

◎정기연구주제 : Time지의 Cover Story(모임이 있는 당일판)
◎특별연구주제 : 5—6월 Streetcar Named Desire by Tennessee Williams
일시 : 5월28일, 6월11일, 6월25일 오후4시부터 5시50분까지

장소 : West End YMCA (931 College)
(연락)536—1166 Mr. 김
영어지도 : Miss Susan Lesjek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완전한新聞

◇ 全斗煥대통령이 전국 發明장려대회 수상자들을 접견하고있다。

"發明家 적극支援해야"

全대통령、발명장려大會 수상자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9일 하오 청와대에서 許愼九씨(金星社대표)등 제18회전국發明장려대회 수상자 38명을 접견、다과를함께 하며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각박한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길은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을통한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 발명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발명품을 계속만들어 내는것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회사에 소속된 발명가들은 소속회사에서 적극후원해주고 학생등 회사소속이아닌 발명가들에 대해서는 발명특허협회와 특허청이 사후관리를잘해 이들이 발명에만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수상자들로부터 特許 업무의 간소화、모조품에 의한 발명가 권익침해사례규제、발명試製品 생산을위한 低利융자 혜택등을 건의받고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열발레團과 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9일 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韓英修交 1백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訪韓중인영국의 로열발레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치、오찬을 베풀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영국왕실의 글로스터公、핀들레이王立오페라하우스부원장、男女무용수등 9명이 참석했으며 李範錫외무장관 金相万韓英修交1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스프레클리駐韓영국대사내외가배석했다。

韓獨 민간經協委 獨위원장에 훈장

全斗煥대통령은 19일하오 청와대에서 韓獨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쿠르토·한센西獨측위원장을 접견、修交훈장 興仁章을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금년이 韓獨修交1백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면서 韓獨양국은 分斷의 비극을 함께안고있는 유사한환경에 처해있는만큼 여러분야 경제는 물론 문화·교류등 각분야에 민간차원에서 다음 1世紀를 향해 양국간의 교류를 더욱확대하고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로했다。

1원짜리 사라진다

내년부터 稅金·豫算등에 안써

내년부터 1원짜리 鑄貨유통이 사실상 사라지게된다。정부는 각종세금계산과 예산을 지출할때 적용되는 화폐단위의 끝자수를 현행 1원에서 내년부터는 10원단위로 바꾸기로했는데 이에따라 모든 세금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등의 회계처리에서는 1원및 5원짜리가 사라지게 됐다。국고금의 끝자리수 계산단위를 바꾸려면 국고금 단수계산법을 고쳐야하는데 재무부는 이를 위해 단수계산법 개정안을마련、지난18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끝자리 숫자를 1원에서 10원으로 바꾸기로한것은 1원짜리 주화를 만드는 비용이 6원정도나 되는데다 실제상거래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있 기때문이다。

지난13일현재 韓銀에서 발행한 1원짜리주화는 3억7천7백39만1천1백19개로 세금과 봉급、이자계산용이외에는 거의쓰이지 않고있다。한편 韓銀은 공공거래에서 1원짜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1원짜리 鑄貨발행은 계속할 방침이다。

사회단체·民間기관 講習·연수

國民教養 10%의무화

문교부는 사회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 연수등 각종사회교육 활동이 30시간 또는 30일이상 계속될때는 교육시간의 10%이상을 국민정신교육、새마을교육、국사교육、경제교육、안보교육등 국민교양교육중 한가지를택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할방침이다。

19일 문교부는 이를위해 마련한 사회교육법 시행령(안)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종사자가 4인이상이나 연간 2백40인 이상이 이용하는 교육단체나 시설에는 자격을 갖춘 사회교육전문요원을、초·중·고교에는 학교마다 사회교육전담교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도 모든 사회교육단체나 기관이 수강자로부터 참가비 시설이용료등 수강료를 받을때는 반드시 시·도 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이상 계속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에게는 그경력을 인정하고 국가가시행하는 각종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등 적절한 대우를 해주기로하고 ▲새마을 직업학교등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할경우에는 고교졸업자격 검정고시등에서 몇과목을 제외하는등 특례를 부여토록규정했다。

非業務用 땅 再買入 25업체서 40건

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를위한 9·27조치에따라 각기업이 韓國土地開發公社에 비업무용토지를 팔았다가 변칙적인 입찰방식으로 되산땅은 모두40건、1천2백93만1천3백84㎡(3백91만1천7백44坪)、액수로는 83억9천8백93만2천원규모인것으로 밝혀졌다。관련업체들은 25개업체로 대부분재벌급기업들이다。

또한 40건중▲9건은 지난3월 검찰조사결과 土開公으로부터 땅을되산 사실이 밝혀진것이고 ▲나머지31건은 지난 4월12일부터 1개월동안의 자진신고기간중 각업체가 자진신고한것이다。그러나 이밖에도 4개업체가 土開公에 비업무용부동산을 팔았다가 되산땅이 7건이나 되는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하고있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土開公으로부터 변칙적인 방법으로 되산땅을 모두 土開公에 다시 팔도록 하고 그매각대금은 전액 해당업체의 은행부채를 상환토록 조치했다。

19일 金宗鎬건설부장관은 지난 4월12일부터 5월13일까지 한달동안 土開公으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한 사실을 자진신고토록한 결과 曉星그룹등 21개업체가 31건、1천2백68만7천1백51㎡(3백83만7천8백63·8坪)、액수로는 65억2천1백99만2천원어치를 자진신고해왔으며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韓一合纖등 4개업체의 9건을 포함하면 재매입한땅은 모두 40건、1천2백93만1천3백84㎡(3백91만1천7백44坪)이라고 발표했다。

金장관은 재매입한 의혹이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않은 鮮京등 4개업체의 7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정밀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결과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말했다。

이들업체들은 재매입토지는 9·27조치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 매입한것이라는 사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金장관은재매입사실을자진신고한 기업이 土開公에 매각을 하지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제재를 가하고 범법사실은 사직당국에 고발 할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들기업이 토지재매입과정에서 탈세、증여등 세법상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세법의 규정에따라 처리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自進신고만 21업체서 31건

林野등 3백83만坪에 65億

申告안한 4업체의 7건은 別途로 조사중

曉星그룹6、金河방직등 3、江原산업 2건

그러나 신고된토지중 소유권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간 토지와 공장및 탄광의 진입로、선산의 묘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등은 6월말까지 土開公과 은행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반이 현지정밀조사를 실시한뒤 원상회복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신고된토지는 임야가 22건이나 99·3%를 차지、대부분이며 주거지역은 8건、0·1%、공장지역은 1건、0·6%씩이다。

자진신고를 한업체와 재매입 의혹이있는 업체명단과 재매입건수는 다음과같다。(괄호안은건수)

◇자진신고업체

▲曉星그룹(6)▲金河紡績(3)▲韓國火藥(3)▲江原産業(2)▲豊山金屬(1)▲進興企業(1)▲韓寶住宅(1)▲曉星製紙(1)▲宇昌建設(1)▲(株)海德(1)▲東西海運(1)▲韓進(1)▲大林産業(1)▲盛昌企業(1)▲東洋化學(1)▲韓鮮麥酒(1)▲三慶開發(1)▲三華化成(1)▲汎洋專用船(1)▲안풍진(전東亞建設직원(1)▲상원농산(1)

◇재매입의혹있는업체

▲曉星그룹(4)▲鮮京(1)▲三和(1)▲大韓電線(1)

옛날의 서울은 지금 어디에

두女人 韓榮洙作

렌즈의 時代史

한국寫眞半世紀展서

서울처럼 무섭게 변해버린 도시도 찾기 힘들다。

세루두루마기와 검은 공단두루마기차림에 두터운 인조여우털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 고무신을신은 두여인의 모습은 1950년대 서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었던 전형적인 서울여인의 나들이 차림이다。

1956년 해동무렵 사진작가 韓榮洙씨(당시20대)는 서울麻浦區孔德洞철도옆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사진을 찍었다。포장안되어있는 길밑으로 잇달아 늘어선 기와지붕의 선에서 한국의 숨결을 느낄수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에서】

텔렉스 開設 韓-中共合意

日紙 보도

【東京=宋孝彬특파원】한국과 中共은 中共여객기납치사건과 유사한 돌발사태가 발생할때 긴급연락 창구로 일본 국제전신전화공사(KDD)를 경유하는 텔렉스 回線을 개설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이 19일 밝혔다。

韓·中共 양국은 中共여객기 납치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양측은 상호협조정신이 긴급사태발생시에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했으나 구체적인 창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양측의 연락채널이 KDD를통한 텔렉스회선의 개설인것으로 이소식통은 밝혔다。

이소식통은 韓·中共간의 텔렉스回線이용에는 비행기의 납치뿐만아니라 어선의 나포및 긴급조난시에도 활용될것이라고 전망했다。

外務部선 否認

외무부당국자는 19일韓·中共간의 연락창구로 일본 국제전신전화공사를 경유하는 텔렉스回線개설에 합의했다는 外信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地平線

美국무성은 土·日요일을 빼고 매일 아침 기자들에 브리핑을해준다。국무성 대변인과 기자들간에 상호신뢰가 바다에 깔린다。브리핑은 길면 1시간을 넘기기도 하나、대개 40분쯤 계속된다。큰뉴스가 없는 날에는 70~80명의 기자들이 참석한다。국무성 브리핑실에 직접나오지 않는 기자들도 프레스센터에서 국무성 대변인과 기자들간의 입씨름을 특별장치를통해 그대로 들을수가있다。

▼이 국무성 브리핑은 미국기자들이나 세계 곳곳에서 온특파원들이 빠뜨릴수 없는 일과다。이 브리핑을 통해 국무성 대변인이 자진해서 뉴스를 던져주지는 않지만、이 브리핑을 듣고 나면 그날의 큰국제뉴스가 어떤것들이고、국무성이 그문제에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다는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이 브리핑은 그야말로 국무성대변인과 기자들간의 말솜씨、두뇌、패기 싸움이다。매우 신사적이며 지적이다。국무성 대변인은 미리 질문을 가상하여 답변지침을 갖고 나온다。기자들은 그지침 이상의것을 알아내려고 한다。대변인은 지침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지침에 없는 질문이나오고、자기 권한으로 답변할수 없는 성질의것이라도、정당한 질문이라고생각하면 대변인은『테이크·퀘스천』이라고 말한다。질문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추후 고위층이나 해당전문부서와 상의해서 답변을 고시한다。대개 두세시간걸린다。▼대변인과 기자들간의、이말의향연은、기자들은 약95%가 녹음한다。기사를쓰거나 방송할때 대변인의말을 한자도 틀리지않게 인용하기 위해서다。미국정부와 언론간에는 때로는 서로를 못마땅히 여길때도 있으나 그신뢰도는높다。그신뢰의 창구를 통해 정부시책이 국민들에 전달되어간다。막히지않는다。미국취재의 경험을 되살리며、그때 느꼈던 부러움을、요즘와서 재삼 절감한다。

李文公장관 귀국

李振遠 문공장관은 15일간의 영국、프랑스등 유럽4개국방문을 마치고 19일하오3시40분 KAL便으로 귀국했다。

李장관은 유럽방문기간동안 로마교황을 알현하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하는한편 유럽지역 공보관회의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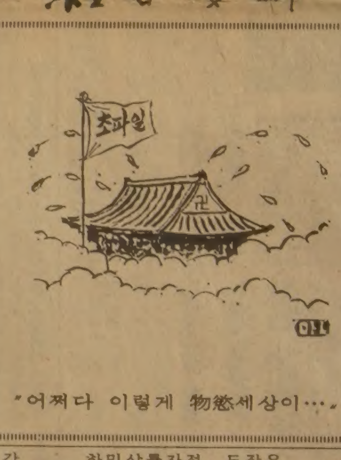
夏穀수매가 인상을

民韓·국민성명

民韓黨과 국민당등 야당은 금년도 夏穀收買價를 작년보다 20%이상 인상하도록 촉구했다。

民韓黨과 국민당은 이날 정책위의장단회의와 당직자회의를 각각열고 夏穀價를 21·4%、24·6%씩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농민이 원하는 全量을 수매하도록 촉구했다。

社会漫評



"어쩌다 이렇게 物慾세상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잊지못할 추억! Y 여름학교(Day Camp) 안내

토론토 한인YMCA TEL. 536-1166
931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A1

대의 귀여운 자녀를 전통있는 Y 여름학교에 보내보시지 않으렵니까? 금년에는 메트로 Y-Day Camp의 하나로 Fine Arts and Culture Camp라는 이름으로 학생모집을 합니다.

(1)캠프날짜 및 등록비(School Bus 포함)
제1회 캠프…7월 4일-15일(2주간) $135
제2회 캠프…7월 18일-29일(2주간) $135
제3회 캠프…8월 1일-12일(2주간) $135
제4회 캠프…8월 15일-26일(2주간) $135

(2) 캠프대상자 :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

(3) 프로그램(월-목요일·오전9시-오후3시반)
(가)한국노래및 세계민요
한국노래및 세계민요를 매일 30분씩 배우고 합창한다.
(나)한글(어학)공부
하루에 2시간씩 한글·불어·이태리어·불류갈어중 한과목 선택.
(다)수영
매일 45분씩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또는 자유수영을 한다.
(라)체육
에어콘이 되어있는 YMCA 실내체육관에서 Floor Hockey, Murder-ball, Basket-ball, Valley-ball, Soccer 등을 한다.
(마)취미과목(선택)
피아노·미술·태권도·한국무용·과외공부(수학·영어)
금요일 프로그램(야외수업·소풍)
매주 금요일마다 즐거운 소풍을 가며 가족도 따라갈 수 있다. 가는곳은 Central Island, Sunnybrook Park, Ontario Place, Kew Beah, High Park, Wonderland, Clairmont Conservation Park등

(4) 캠프지도자
캠프 디렉터는 20년의 YMCA경력이 있는 김장열 총무가 직접 맡고 경험있는 젊은 대학생을 교사및 카운셀러로 기용, 어린이들의 안전과 흥미와 단체생활및 학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5) 데이케어
양부모가 직장에 나가는 어린이를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현대식 시설을 갖춘 Day Care Centre에서 맡아주며 그 비용은 2주간에 $25밖에 안받는다.

(6) TAX (세금공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는 이 Day Camp(여름학교)나 Day Care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7) 스쿨버스
안전한 스쿨버스에 훈련받은 교사나 성인이 동승함. 정확한 픽업시간은 개학 1주전에 캠프지도자가 통지할 것임.
미시사가, 스카보러, Yonge Steele, Markham등은 집앞 또는 인근 학교등에서 픽업할 것이며 신청수에 따라 스쿨버스 노선이 결정될 것이므로 먼저 신청하는 분이 유리함.

(8) 등록
참가할 캠프날자를 정한후 수표나 Chargex Visa로 신청할 수 있음. 수표를 보내는 경우 전액을 보내거나 $25예치금 수표와 잔액을 개학 14일전 날자의 Post Date 수표로 보내야 함.

(9) 할인
일시불을 하여야 할인의 혜택을 받으며 어린이가 2회부터는 $10씩 할인되며 한집서 두어린이 이상이면 첫회는 $10, 두번째회 부터는 $20씩 할인됨.

10. 반환
취소나 반환은 반드시 캠프시작 14일전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25 사무비는 공제된다.

中央廳이여 안녕!

—어제 마지막 國務회의

숱한 곡절겪고… 來週 이사

日帝殘滓씻는 마지막 걸음

앞으로 국무회의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게된다. 새 국무회의에는 국민들의 「보다 국민을 위한 國政 심의」의 요망이 쏠려있다.

○…中央廳국무회의실이 19일의 定例국무회의를 끝으로 문을닫는다. 中央廳의 국립중앙박물관化계획에 따라 中央廳건물안의 국무총리실을 비롯, 외무부, 총무처, 법제처, 정무장관실등이 다음週末인 28일까지 종합청사건물로 이사해감에따라 국무회의실도 종합청사건물 19층의로 옮겨가기때문이다.

이로써 總督府로 쓰이던 건물안에서의 국무회의가 막을내리게됐고 외형상으로 日帝의 殘滓를 씻어내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된셈이다.

이날 中央廳에서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끝나고 金相浹국무총리는 『오늘의 국무회의가 이 건물에서 열리는 마지막회의가된다』면서 『建國이후 대부분의 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일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다』고 感懷를 피력.

金총리는 또 『日帝의 잔재를 씻고 우리가 우리기술로 지은 새건물에서 國政을 논의케된 것을 心機一轉의 轉機로삼자』고 말함으로써 지난해3월부터 시작된 정부청사大移動이 一段落 됐음을 선언했다.

○…중앙청 국무회의의 역사는 48년8월15일 정부수립이후부터 기록하자면 많고도 길다.

19일의 국무회의를 2천62회로 기록한것은 제3공화국정부가 63년들어 6·25때 파괴됐던 중앙청을 복구, 지금의총무처장관실인 前面 3층305호실에서 국무회의를연것을 처번으로한것.

81년2월에는 뒤쪽의 237호실(현국무회의실)로옮겨 금년도 제20회의까지 모두 2만8천1백66건의 案件이 처리됐다.

이기간동안 처리된 案件은 公布案 2천3백90件, 법률안 2천1백11件, 대통령案 1만32件, 일반안건 1만1천5백52件, 보고안건 2천73件으로 63년부터 20년간 年平均 1천3백94건이 처리됐다.

이가운데 정치적 변혁의 격랑이 높았던 63년(1천8백31건), 66년(1천5백66건), 69년(1천5백84건), 70년(1천7백60건), 73년(1천6백98건), 81년(1천5백24건)에는 年平均처리건수를 넘는 실적을냈다.

또 국무회의에관한 통계가 남아있는 58년이후 처리안건수가 많았던 해는 4·19와 5·16이 61년과 62년. 61년엔 1백74회의 국무회가열려 2천26전이 처리됐고 62년엔 1백8회에 2천2백50건이 처리됐다.

○…국무회의는 대부분 회의를주재하는 국무총리의 성격에따라 회의운영스타일, 회의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등 얽힌얘기도 많다.

「政治內閣」으로 불렸던 金鍾泌 총리때는 국무회의 분위기가 엄숙했고 총리의 좌석도 국무위원석보다 좀높았던 반면 「實務內閣」으로 통했던 崔圭夏총리때는 다소 자유스러운 토의분위기였다는 소식.

○…정부수립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수는 지금까지 약5백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회의실의 탁자모양은 당초의 長方形에서 81년1월 南惠祐총리때부터 타원형으로 바뀌어 현재에이르고있다. 그전엔 의장석 좌우에 두줄로 국무위원석이 배열됐었으나 지금은 의장석을 가운데두고 둥그렇게 국무위원석이 배치돼있다. 【河長春기자】

社說

法萬能·罰萬能인가

끔찍한 사건이 잦다. 그에 대한 단죄 또한 준열하다.

이 며칠 우리는 이른바「家庭파괴犯」에 대한 極刑 또는 無期刑 선고기사를 잇따라 읽고있다. 강도·강간을 일삼던 일당중 20대 초반의 젊은이 3명이 한 법정에서 死刑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16세 미성년 피고인이 無期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家庭파괴범의 罪質로 보아서는 그런 중벌이 당연한 應報다. 판결문과 신문지면에 보이는「非人間」「精神的 殺人」등 단죄의 글귀들이 이를 지적하고있다. 그말을 새기며 우리는 서릿발같은 법앞에 숙연함을 느낀다.

그 한편으로, 우리는 그 단죄의 말들에 담긴 다른 함축도 생각한다. 그말들은 결국 그들을 矯正할 능력이 이 사회에 없다는 고백이요, 重刑아닌 선도방안을 못찾고 있다는 自責이나 같다. 그 말들은 결국 人間性에 대한 절망의 소리나 다름없다.

그리고 重刑의 범죄 예방효과란 과연 어떤 것인가. 重刑규정이 모자라서 흉악범죄가 자꾸만 느는가—의 의문도 절로인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더라도, 이런 설움과 의문은 꼭 있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청소년 重刑이 불가피한 사태에 앞서 있어야 했던 일, 重刑의 영역을 넘어선 데까지를 보지않고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래의 우리나라 법과, 또 그법의 운용은 매우 엄한데로 흐른다. 각가지 가중처벌법이 나오고 監護제도가 신설되어, 엄벌에 엄벌이 겹치는 인상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死刑을규정한 우리나라 법조문이 몇이나 될지, 死刑선고의 공판기사가 얼마나 잦은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꼭 死刑까지 규정한 법규가 아니라도, 요즘 알려진 정부의 立法案중에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지우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거나, 형량을 높이자는 취지의 것이 많다.

엊그제 사이 보도된대로, 未成年者保護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3년이하의징역을 살리도록, 현행 형량을 3배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더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輕犯罪처벌법은 길가呼客·운동장의 술병휴대·秘密댄스홀출입등을처벌대상으로 추가한다. 性病검진의 의무화와 함께, 검진기피자의 고용주에게 벌금 50만원을 물린다는 傳染病예방법 개정안도 나와 있다.

이들 개정안을 보면, 법의 영역에 속할지 공중도덕의 영역에 속할지 의문스러운 것, 처벌대상이 막연한 것, 罪質과 형량의 균형이 미심한 것, 私生活과 生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등이 들어있다.

이들 낱낱 조항의 當否는 立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하지만, 이들 모두에 공통된 것은 일종의 法萬能사상인듯이 느껴진다. 무엇이든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 법만있으면 무엇이든 다 될듯이 여기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법의 유효성을 重罰로 보장하려 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곧장 罰萬能으로 통한다. 학생을 다스리는 規律주의者, 體罰論者를 연상한다.

크게는 死刑에까지 이르는 형사법규, 작게는 拘留·科料로 그치는 행정법규가 모두 이점에서 軌를 나란히 하는것같다. 그래서 법의 한계, 법의 영역과 또 다른 차원의 경계, 그리고 법의영역 확장이 필요없도록하는 市民的自覺이 아쉬워 진다.

黃金萬能이 착각인것처럼 法萬能·罰萬能 역시 착각일수 박에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의 불을 밝히자

—부처님 오신날의 참된 보람

올해 20일로「부처님 오신날」은 2527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15개불교종단의 7천3백여절과 암자마다 등불을 밝혀「오늘 오신 부처님」의 뜻을 기리며, 1천3백만 불자들이 이날을 봉축한다.

이땅에 불법이 전래한지 1천6백여년, 해마다 등불을 밝히는 뜻은「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있다.

부처님은「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것은 이기심 때문이며 그 구속으로부터 헤어날수 있는 길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았을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이성철 조계종 종정의「시비선악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인 중도(中道)가 부처님이라」고 한 올해 초파일의 법문도 같은 소식으로서, 다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절대성에 대한 깨우침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밖으로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부상한 전변과 안으로 남북대립의 심화로 불안과 불신이 지배한다.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산업사회지향으로 말미암은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혼란과, 물질위주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사람으로하여금 아집(我執)으로만 치닫게하여,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아닌 대립과 편견을 만연케한다.

이렇게 정신풍토가황폐하고 인성의 본질마저 자칫 저버리기 쉬운 현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불교신앙의내실과 그기능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올해따라 한국불교의 양대산맥이라고할 조계종과 태고종에서는 여느해의 불탄일 봉축행사와 다르게, 전자는「불우이웃돕기」에 나섰고, 후자는「자비행의 실천만이 현대사회를 구원하는 첩경이란」는 주제아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가난한 이웃들에 관심을 모으려한다.「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한 기꺼운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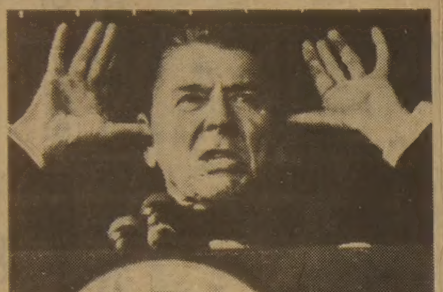
근자 우리 둘레에서는 천륜이 끊기고 인륜이 저버려진 나머지의 소행으로 밖에는 생각할수가 없는 반사회적인 불상사가 꼬리를 물고, 심지어는 큰 도둑이 백주의 대로를 횡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른바 말법(末法)의 양상마저 엿보이는듯하다.

또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웃에서, 사회의 진전에서 낙후된채, 외롭고 괴롭고 슬픈 삶들의 고해(苦海)가 걸맞다고 해야할 그늘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짐짓 한해 한번의「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며 등에 불을 밝히는 봉축행사도 뜻있는 일이겠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마음자리 그늘에도 불을 밝혀으면한다.「나」를 발견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늘진 이웃에게도, 또 사회의 무명(無明)의 어두움과 마음과 육신이 함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자비의 불을 밝혀서, 함께 화합과 평화를 누릴수 있게 하는 것이「부처님 오신날」의 참된 보람이요, 불교가 당면한 올바른 신행의 모습일 것이다.

蘇, 킬러衛星 이미 配置

宇宙·북극海도 전쟁터로



“성난 독수리” 레이건美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출입 사진기자들과의 만찬석상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사진기자들에게 익살스러운 동작을 취해보이고있다. 【워싱턴19日UPI聯=聯】

【워싱턴AP·聯=聯】미국과 소련은 전쟁발발사태에 대비, 우주와북극海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위해 각각킬러위성과 신형핵잠수함등 「人類史上 가장 값비싼」 무기개발경쟁을 벌이고있다.

프레드·아이클美국방차관은 18일 소련이 우주공간을 앞으로의 전쟁장소로 인식, 미국의 우주체제를 파괴할수있는 킬러위성등을 이미 지구궤도상에 배치해 놓고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제임즈·워트킨즈 美해군 참모총장은 북극해역의 두꺼운 빙산밑에 배치돼있는 소련핵잠수함隊가 유사시 소련해군의결정적 예비군사력이될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대비한新型핵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클 국방차관은 이날 美上院외교위에 출석, 미국이 對蘇우주병기제한협상을 가지라는 요청을 의원들로부터 받고 『소련이 10여년전에 궤도배치 요격위성무기를 개발, 배치한 점에 비추어 이는 소련이 우주공간을 앞으로의 전쟁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말했다.

東歐 기술자에 日, 入國을제한

【東京=聯】일본정부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諸國의 기술자및 학자의입국을 제한하는등 첨단기술의 對蘇유출방지체제를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9일 일본정부가 최근 미국의 강력한요구에 따라 소련과 동구권기술자들이 기술및 학술교류명목으로 來日하려는경우 비자발급을 거부또는 지연시키는등의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보도했다.

“日·北韓외교관 제한접촉 수년전 指針정했다”

日 共同통신 보도

【東京AP聯=聯】일본외무성은 외교관들이 북한외교관들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접촉을 허용하는 지침을수년전 정해놓았다고 19일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외무성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일본외교관들은 사교목적의 모임에서는 북한외교관을 접촉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아놓고있다고말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관저의 이같은 발언이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외상이 지난 18일밤 아시아 아프리카법률 자문위원회 東京회의참석자에 베푼 리셉션에서 북한의 법률전문가와 잠시대화를 함과 관련해서 받은질문에대한 답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관리는 또 일본외교관들은 남북한간 오랜 긴장해소를 돕기위해서 북한인들과의 이같은 접촉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美 개정移民法案 통과 不法입국자 대거 赦免

【워싱턴AP·UPI=聯】미국내에 있는 수백만의 불법체류자들이 20년만에 처음있는 이민법개정으로 인해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게될 것같다.

上院은 불법이민을 막고 현재 미국에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을 취지로하는 이개정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80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입국한 사람에게는 임시거주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며 77년1월1일 이전에 불법입국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고5년이 지난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한다는것이다.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약 1천3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拉致犯 보내달라

【臺北AP=聯】대만의 여러그룹들은 18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지난5월5일 중공민항기를납치한 6명을 대만으로 보내줄것을 진정했다.

海外토픽

바웬사 사회정의상 美자동차노조 수여

美자동차노동조합은 폴란드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에게 사회정의의賞을 수여했다.

이 사회정의상은 바웬사를 대신하여 추방된 전자유노조원 카스메릭·메제스카가 받았다.

프레이저노조장은 『우리는 이 상이 바웬사라는 한개인에게 수여되지만 바웬사의 뒤에는 1천만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어 프레이저노조장은 바웬사가 미국에와서 직접 이 상을 받기를 바랄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UPI】

◇공작의 「눈먼안경」 시력이 나쁜것일까? 근시인 공작이 끼고있는 안경같은 물건은 동물원에서 이공작이 다른 동물들을 쪼아대는것을 막기위해 씌운 눈가리개라고. 【바드메르겐테임(西獨) UPI사진聯=聯】

中共, 피카소작품에 찬사·비판 兩面

“창조정신 훌륭… 技法은 生命없어”

중공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파블로·피카소의 미술품을 감상한 중공의 한미술가는 작품속에담겨진 피카소의 정치관과 예술적 창조정신은 격찬할만 하지만 피카소의예술성은 일반대중의 미적감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나머지 그의 입체주의적 기법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닐수없다고 강조했다고.

샤오·다쳰이라는 미술가는 지난5일 北京에서 개막된 피카소작품전을 관람한후 光明日報에기고한 평론에서 『피카소란는 이름은 중공인들에게 낯설지만 그는 열렬한 애국심과 진취적인 정치관, 그리고 심오한 예술적인 업적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찬양하면서 특히 피카소의 동양화의 기법을 예찬하기도했다. 【AP】

異性접촉서도 傳染 후천성 면역缺乏症

동성연애자나 약물중독자에게만 주로 감염되는것으로 알려져왔던 새로운불치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異性간의 性的인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수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뉴욕市 소재 몬테피오르·메디컬센터의 캐럴·해리스박사가 이끄는 연구진들은 19일 발간될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지에서 AIDS에 감염된 남성약물중독자 8명의 배우자중 7명이 AIDS의 초기증세를 보였으며 이중 1명은 완전한 AIDS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이같은 조사결과는 『AIDS환자와 性的인접촉을 갖는 異性도 이병에 걸릴위험이있음을 시사하는것』이라고말했다. 【聯】

체육부職制 개정 국무회의서 議決

국무회의는 19일 체육부職制 개정안을 의결, 3級감사관과 체육정책과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관리실장밑에 정책조정관(3급), 차관밑에 감사담당관(4급)을 두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체육과학국의 기획과와 조사연구과를 조사기획과로 통합하는 한편지도훈련과를훈련과와지도육성과로분리키로했다.

政局往來

꼭 英國방문해 주시길

全斗煥대통령내외는 19일낮 영국로열발레단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의 문화예술발레의 어려움등에 관해 환담.

全대통령은 핀들레이王立오페라 하우스 부원장이 내년에 영국에서 열리는 한국미술5천년展에 관해 화제를 꺼내자 배석한 스프레클리 駐韓영국대사를 보며『작품들을 볼기다보면 망가질 우려가 있어 영국전시가 끝나면 더이상 않겠으니 대사께서도 본국에 휴가를가셔 한번 보기 바란다』고 권유.

이에 스프레클리대사는『각하께서 그즈음에 영국을 방문해주시면 저도 귀국할 구실이 생길테니 꼭 영국을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特請. 全대통령은 또『한국은 鄭京和, 白建宇씨등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해 세계각국에서활동하고있다』고 소개했는데, 핀들레이 부원장은『鄭京和씨가 런던에서 공연할때는 극장이 꽉꽉 찬다』고 전했다.

이어 스프레클리대사가 한국인들이 絃樂器를 잘 다루는 이유를 묻자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이 일기도.

民正, 親睦골프 盛行

陳懿鍾대표위원을 비롯한 民正黨당직자들은 소속의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市道別로 잦은 골프모임을 계속.

陳대표는 금주부터 이달말까지 소속의원전원과 골프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1차로 지난18일 서울市출신의원들과 뉴코리아에서 골프를 즐겼는데 1주에 2~3차례 같은 규모로 의원들을 골프장에 초청할 예정.

특히 陳대표의골프日程에는 61명의 全國區의원들이 출신市道別로 포함되어있는데 서울토박이등 어느市道에도 소속되지않는 의원이 19명으로 가장많고 경북이 16명, 경남이 7명, 충남·전북이 각 4명을 차지.

이같은 일련의 골프모임을 의식(?)한 탓인지 19일상오 蔡汶植국회의장은 같은 慶北출신의원들을 安養컨트리클럽으로 초청, 친선모임을 가졌다.

財產稅공세 防禦착수

民正黨은 民韓黨과 국민당이 서울市의 재산세부과에 대해 『低物價정책에 逆行하는 高稅率』이라며 성명까지 발표하는등 일련의 공세를 펴자 이에대한 방어에 着手.

李鍾賛民正黨총무는 이날 자신이 조사한 결과라고 전제, 『재산세 평균인상률은 7.6%이고 최고인상세율은 26·7%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특히 최고인상세율이 적용된 주택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民韓黨과 국민당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있는데도 공연한 政治攻勢를 펴고있다』고 野黨을 비난.

그는 이어 『오는 25일 서울市출신 위원 간담회를 갖고 서울市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黨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市행정에 출신議員들 참여시켜라” 民韓의원들 市에 「遠征추궁」

劃一的인 課稅是正을

民韓黨의 서울市출신의원들은 19일 財產稅과표인상의 是正을요구하기위해 金聖培서울시장을 방문, 약50분간에걸쳐市행정을추궁.

이날 孫世一市지부장등 11명의 의원들은『변두리나 도심지나 課標가같은 것은 모순이아니냐』면서『획일적인 부과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촉구.

특히 韓光玉의원등은『市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원망을 사는 拙速한 행정계획을 막도록 市출신 의원들만이라도 참여시킬 腹案이 없느냐』고 물었고 다른의원들은『서울市의 주요시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市의 負債가 1조2천억원이라는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추궁.

이에 金시장은『재산세는 물가·부동산상승률을 포함해 부과한것으로 이미 告知書를 발부해 인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말로만 敬老 優待

19일상오열린 국민당의 當職者회의는 보리收買價등 농촌문제들을 논의한 끝에 이를 6월국회에서 적극추궁키로 결정.

이날 金鍾哲총재는『수매가가 낮아 농민들이 숫제 보리농사를 지으려하지 않는 경향이있다』고 지적하고『노인들이 천원짜리를 흔들어야 버스가 와서 멈추고있어 敬老란 말만 혼자따로 걸어다니고있다』고 주장.

이날 尹錫民부총재·李聖秀·金璟洙·金翰演의원등도 농촌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호소했는데 특히 尹부총재는『보리수매가를 가마당4만원씩에 수매할경우 1%를 올리는데 16억원, 10%를 올려도 1백60억원으로 정부재정에 큰문제가 없다』고 주장.

한편 金完泰대변인은『최근 농촌엔 본격적인 농사철인데도 각종 敬老잔치·체육대회·단합대회등이 열려 일부농민들이 막걸리에 취해있는 경우가많다』고 때아닌「잔치러시」에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 Continental Console CX-4 | Studio UST-7 | Professional KS-3F | Professional KL-502 |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陽性化여부」 꾸물대는 틈에 電子오락실"洪水"

90%가 無許… 서울에만 萬여곳
도박 조장등 부작용 심각
權利金 수천만원·器機임대업도 호황
대학신문선 "학생들이 年7억원탕진"

◇"娛樂街"로 변신한 大學街 서울K대학앞 골목길. 지난해 9월까지만해도 대포집, 분식 집, 다방등이 즐비했는데 최근에는 좁은 골목10m거리 양편에 전자오락실이 무려 6개나 생겼는데 모두 성업중이다.

서울에만도 전자오락실의 숫자가 1만개소를 넘었다. 각급학교주변은 말할것도 없고 웬만한 상가나 골목길에까지 몇개소씩 들어 앉았다.

이제 시끄러운 전자음은 문제도안된다. 대부분의학생들이 가지못해 안달을하고 도박행위까지 등장하고 있어 부작용이 이만저만 심각하지않다. 그러나 주무당국은 「양성화여부」를 놓고 계속구물거리고있다. 지금 돈벌이가 잘된다해서 무허가가 계속 늘고있는데다가 오락기 임대업까지 등장했는가하면 일부업자들은 체인화, 대기업화까지 서둘고있다는소식. 「전자오락실 범람」은 어디까지 흘러가겠다는 것인가.

전자오락기 임대업은 1대에 50만~2백만원인 기계를 한꺼번에 구입할 자금이 없거나 단속에 불안을 느끼는업자에게 오락기기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는 신종기업.

현재 서울에는 이같은 임대업자가 世運상가등을 중심으로 1백여명이 성업중인데 기계2백여대를 지방에까지 임대해주는 업자도 있다.

이들은 기계수리는 임대업자가맡고 이윤의 분배비율은 지역에따라다른데 永登浦역앞,서울역주변,대학가등 비교적 수입이 좋은 곳은 점포주와 임대업자가 6대4로, 변두리지역은 5대5로 나누어 갖는다.

임대업자 尹모씨(34·서울冠岳區 新林7洞)는 전자오락실을 경영하다 단속시비등이 귀찮아 아예 기계20대를 사들여 시작했다면서 『신설업소,다방,문방구,복덕방,만화가게등에 1~2대씩 설치해주고 3~4일에 한번씩들러 임대료만 챙겨온다』고 말했다.

尹씨는 기계1대당 5천원은 보장돼 한달 수입이 평균2백만~3백만원은된다며 『1천만원을투자,이만한 수입을 올리는장사가 어디있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유행에따라 무허업소가 폭증, 4월현재 집계된 전국의 전자오락실은 모두 8천3백69군데(허가 7백69·무허7천6백)로 이중79%인 6천군데가 서울에 집중돼있으나 실제영업을 하는곳은 서울에만도 1만여군데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서울永登浦역 맞은편 70m의 도로변에는 지난해 9월까지 전자오락실이 5군데뿐이었는데 그후 7군데나 늘어났고 永登浦역앞에서 永登浦경찰서에 이르는 50m 도로변에도 올해 6군데가 새로 생겼다.

이같은 신설 무허가전자오락실은 대부분 실내야구장, 의류가게, 생맥주집이 변신한것으로 권리금만도 1천2백만~2천5백만원을호가하고 있다.

이천 P부동산주인 金모씨(60)는 『하루평균3~4명이 전자오락실을 차릴 가게를 구하러온다』고 전했다.

서울鍾路區貫鐵洞 C빌딩주변 50m이내지역은 지난1년동안 1군데에서 10군데로 10배나 늘어났다.

학교주변도 마찬가지.

K大앞의 경우 막걸리집10군데중 9군데가 지난1년사이 전자오락실로 전업하는등 모두 14군데가 성업중이고 Y大앞도 지난해3월 1군데에서 14군데로 늘어났다.

이대학의 학보는 지난 2월28일자에서 『학생들이 1년동안 전자오락실에서 소비하는돈은 7억원으로 재학생 2천5백명에게 장학금을 줄수있을 정도』라고 밝히고 있을정도다.

서울鍾路區鍾路1街 오락실 주인 崔모씨(48)는 『오락기 30대가 1대당 하루1만5천원을 벌어주는데 모두현찰인데다 세금도없어 월세 1백30만원과 전기요금등을 제외하고도 한달수입이 3백만원정도는 보장된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이 호황을누리자 오락실은 점차 대형화한추세인데 K大앞 J오락실의 경우 67대,永登浦시장앞C오락실은 80여대를 설치하기도했다.

또 일부업소에서는 각종 도박을할수있도록 꾸며 청소년들은 용돈을, 일부시민들은 월급을 털리는경우도 있다.

한편 보사부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독이 『많다』는 점을 인정, 『이런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하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허가한다해도 무허가업소가 계속 생기며 단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될것』이라고 양성화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사부는 전자기 자체를 교육적이 될수있도록 개발, 청소년들이 자신이 프로그램을만들어 게임을 할수있게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있을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 있어 폐단은 날로 심해지고있다. 【金宗來기자】

잘못된 戶籍 쉽게 고친다

大法院, 訂正신청권 명문化 市郡邑面서 3~8일內 처리

대법원은 19일 담당공무원의과실로 잘못 기재됐거나 기재사항이누락된 호적의 정정을 손쉽게하기위해 당사자의 정정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정정시한을 신청후 3~8일이내로 명시한 「호적직권정정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시·군·읍·면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침은 지금까지 호적법에 호적공무원의 과실로 잘못작성된 호적에대해서는 시·군·읍·면이 직권으로 정정해주도록 규정돼있는데도 정정신청의 절차와 방법·처리시한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없어 시·군·읍·면이 정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정정신청서양식도 만들어 오는 6월15일부터 정정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지침에 의하면 정정신청을 받은 시·군·읍·면은 보통사항인 경우는 3일이내에 처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할 중요한내용변경인 경우는 신청서를 5일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며 법원은 이를 3일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했다.

또 정정신청서를 당사자본인이 기재하기 어려울경우 정정하고자하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구술신청제도도 마련했으며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호적공무원의 과실로 잘못 기재된사항중 당사자의 신청에의해 3일이내에 정정할수있는 사항은 ▲행정구역명칭의 오기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의한 생존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누락 ▲부모가 개명 또는 성명정정을한 경우 그자녀의 부모난의 정정등이다.

한편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8일이내에 처리되는 중대사안은 성명 생년월일 본적등이다.

석탄일 千百86명가석방

법무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20일 상오10시 전국교도소및 구치소·소년원에 수감중인 모범수 9백67명·모범소년원생 2백19명등 모두1천1백86명을 특별가석방 또는 특별가퇴원시킨다.

이에따라 전民韓黨 소속 국회의원 韓英洙씨(48)도 복역중이던 安養교도소에서 형기만료 40일가량을앞두고 출소한다. 韓씨는 지난해6월29일 朴모씨(36·서울江南區方背本洞)와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됐었다.

또 이번특별가석방엔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무기수2명과 10년이상장기수형자 31명이 포함돼있다.

褒命仁법무부장관은 19일 석가탄일가석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을 강화해 자립갱생의욕을 촉진시켜 잘못을뉘우치고 재범우려가없다고 인정될때는 사회에 복귀할수있도록 가석방의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하고 『상습범, 마약, 패륜범, 밀수범, 해외취업사기범등 사회고질적 사범에대해서는 가석방의 문을좁히겠다』고 밝혔다.

國防部청사에 불

18일 하오11시33분 국방부청사 9층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건물내부 4백여평을 태우고 1시간만에 꺼졌다.

불이나자 소방차 40여대가 긴급출동했으며 이화재로인한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일단 전기누전으로보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影島세어린이 살해 16세犯人 無期

【釜山】부산影島 세어린이 피살사건의 범인 朴모군(16·釜山市影島區蓬萊洞)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10萬弗 밀반출기도
金浦세관 中國여성 2명검거

金浦세관은 19일 중국인 王淑貞씨(28·여·대만거주)와 王모양(19·대만거주)등 2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배후를캐고있다.

세관에의하면 이들은 이날 하오5시30분 대만행CPA기편으로 출국수속을하면서 항공사에붙인 여행용가방속에 미화 9만9천5백달러, 일화3백만엔을 숨겨갖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16일 관광차입국했다가 인삼비누갑속에 1백달러짜리 지폐를숨겨 비누로 위장했다.

校內시위 주동혐의 高大生 3명에 令狀

서울城北경찰서는 19일 高大生 金英中군(23·정외과4년) 孫學鵬군(24·경제과4년) 李載亨군(22·영문과3년)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군등은 지난4일하오 高大석탑축제기간인 高大도서관과 서관앞잔디밭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에게 『학원자유보장하라』 『졸업정원제폐지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며시위를주동한혐의다.

教師폭행학생 令狀
서울江南署 "教權확립위한 一罰百戒로"

교사를때린 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江南경찰서는 19일 서울江南區 瑞草洞 S고교2년宋모군(17)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宋군은 지난16일상오 조회시간에 교실에남아 있다가 조회참석을 종용하는 崔奎錫교사(42)를 걸상으로때려 이마와 손등에 찰과상을 입힌혐의다.

경찰은 이날 비록崔교사가입은 상처는 경미하지만 교권확립의 측면에서 볼때 질이나쁜 범죄라고 판단, 일벌백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崔교사는 경찰에서 『宋군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말했으며 宋군의 어머니는 사건다음날인 17일 宋군의 자퇴원을 제출, 학교측은 18일 이를받아들였다.

이학교 崔恩錫교감은『宋군은 1학년부터 지금까지 학급성적이 10~12등 사이로 1학년때는 행동발달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사고가 난뒤 알아본 결과 宋군의 가정환경에 말못할 결함이 있는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날씨맑은후흐려 燃燈행사등가능

부처님 오신날인 20일전국의 날씨는 맑은후 점차 흐리겠으나 비는오지않아 연등행사나 나들이에는 지장이없을것같다. 기온도따뜻한편.

중앙기상대는 19일 전국이 약한 고기압에 들었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우리나라는 맑은후 다소흐리겠으며 기온은 서울 12~24, 大田 11~25, 光州 12~27, 大邱 11~27, 부산14~23, 濟州13~24도 정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셋방서 처녀피살

【慶山】19일 상오 5시20분께 경북慶山郡河陽邑東西洞6 1 1 金만의씨(63)집 아랫방에 세들어사는 金선희양(22·慶山삼미염직 직공)이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숨져있는것을 金양의 어머니 양태금씨(5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聯】

5行뉴스

◆부부싸움남편장남과飮毒 【三千浦】18일하오 8시께 경남 三千浦市東錦洞2 6 6 李정남씨(36)집 안방에서 李씨가 장남 진희군(6)과 함께 숨져있는것을 부인 차영희씨(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 차씨에의하면 이날 아침 남편李씨와 부부싸움을하고 집을 나갔었는데 이날하오8시께 돌아와보니 남편과 장남이 숨져있었고 방안에는 농약병이놓여 있었다는것. 【聯】

銀行지점장이 貸出사기
남의건물담보 3억8천만원 횡령

서울지검 수사과는 19일 前조흥은행 城北지점장 金道執씨(48·현 행원연수원 교수)와 전차장 金周承씨(51·현蓮池洞지점차장)등 2명을 사문서위조·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이들은 지점장金씨의 친구인 세아산업대표 金정수씨(45)에게 무담보대출해준 9천7백만원이 金씨회사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80년12월 1억8천5백만원을 대출받으려는 차모씨(35·목사·서울江東區千戶洞)로부터 대지1백94평, 건평4백6평짜리 건물을 담보로한 대출신청서류를 금액란을 백지로 건네받은뒤 차씨몰래 3억8천만원으로 기재해 대출을 받은혐의다.

失踪 2살짜리 외아들 12일만에 부모품에
20代접대부 自首

서울 東大門區龍頭洞74의15 가게앞에서 놀다 유괴됐던 李仁鎬씨(37·상업)의 외아들 哲旼군(2·18일자한국일보11면보도)이 실종12일만인 19일 새벽1시 부모품으로 돌아왔다.

哲旼군은 이날새벽 哲旼군을 유괴했던 李成順씨(23·여·접대부·서울城北區吉音1洞 549의 1 47)가 안고 淸凉里경찰서 龍一파출소에 자수함으로써 가족에게 인계됐다.

李씨는 지난7일 하오6시40분께 자신이다니는술집에 출근하기위해 東大門區龍頭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기다리던중 가게앞에서 놀고있던 哲旼군을안고 집으로 데리고갔었는데 경찰에서 『2년전 죽은 아들생각이나서 哲旼군을 데려다 기르려고했다』고 진술했다.

突然變異
비구니歌手 悟空스님
"佛敎의 대중화 위해 가야할길…"

얼마전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悟空(26·사진)이란 이름의 비구니 가수가 『가야할 그길이 고향이라지만, 포근히 감싸줄 님이 있으니, 나에 꿈 넘가신길, 씨를뿌리고 웃으며 나이제 길을 떠나리라…』란 찬불가를 불러3천여 청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청중들은 노래를마치고 합장을 한뒤 해맑은 미소를 뿌리고 사라지는 스님에게 폭포같은 박수갈채를 보내悟空스님은 세번이나커튼을 다시열고 나와 합장을 해야했다.

悟空스님은 이날 이곳에서열린 佛紀252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찬불가경연대회」에 찬조출연했던것.

스스로를 한국불교 1천6백년이래 「돌연변이」라고 자칭하는 悟空스님은 옥니에 보조개등 스님같은 느낌이 들지않는다. 장삼과 깎은머리 그리고 살포시 머금은 미소가 다소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출가하기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속세와 인연을 끊으려는듯 입을 열려하지 않는다. 다만 미션계명문여대영문과를나와 79년 비구니戒를 받았고 그때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는것만 비친다.

가수가된것은 불교가 대중과가까와질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라고. 그래서 『어깨너머라도 사당패놀이를 구경하지말라』는 沙彌十戒를 어기지 않았나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있었단다.

悟空스님은 비구니 가수로서의 그동안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 「님의사랑」「부처님」등 10곡이 담긴 독집음반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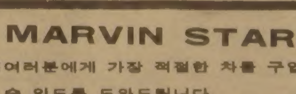
『노래를 연습할만한 장소가 없어 숨어다니면서 연습을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온누리에 전하기위한 고난으로 알고 견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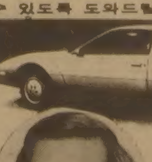
앞으로는 보다 더 대중속으로 파고들겠다고 대중가수같은 포부도 털어 놓는다. 산속에서 자적하는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 불교 복지사업과 학교를 세우는등 생활불교정착에 자신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도 비친다. 나무관세음보살. 【宋大洙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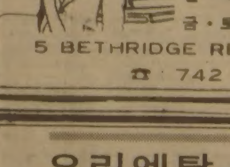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으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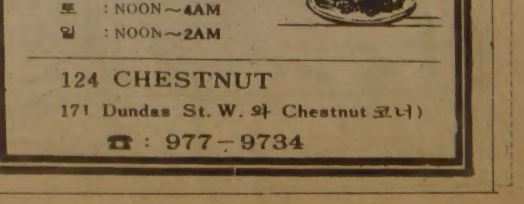


조외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동래 고보 중고교
신춘을 맞아 동래중고교 동문회 발족및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6월 하순)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성래 439-6717
김문고 889-8290
최우현 243-0267
망월회 재캐나다지구동래중고동문회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 247-71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이번엔 내가 壯士"

27일 大邱서 제2회 民俗씨름大會

大學선수들 삭발도

직장버린 李俊熙 매일強訓

洪顯旭은 명예회복 안간힘

천하장사민속씨름대회를 스타트로 프로씨름이 본격 출범한 이래 선수들의 열기가 고조되고있다.

천하장사대회 4개체급에서 靑龍 白虎로 나뉘어 활했던 48명의 장사들은 오는27일 大邱서 열리는 제2회 민속장사씨름대회에 대비, 강훈련을 벌이고있으며 예선전서 탈락했던 2백50여 선수들도 재기를 노리며 칼을갈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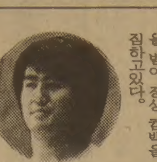
프로데뷔전서 혜성처럼 나타났던 천하장사李萬基(20·경남대)는 靑龍한라급에서 1위를 빼앗겼던 崔旭珍(23·경상대)을 누르고 체급별타이틀도 함께차지하기위해 맹훈련을 쌓고있다. 지난4월말 연습도중 무릎에부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거의완쾌되어 경기에 출전할것으로 알려졌다. 70년대 국내씨름계를 주름 잡았던 金成律씨(37·경남대강사)의 지도를받으며 세기와 승부근성을 다지고 있다.

강력한 천하장사 후보로지목되었다가 신예 李萬基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던 李俊熙(25·부산공동어시장)와 洪顯旭(25·현대중공업)도명예를 되찾으려고 맹훈련중이다.

李俊熙는 지난 대회전까지 경북철강삼부로 일하며 씨름연습을 별로하지않았다. 대회를 보름정도 앞두고 하루1시간정도의 훈련으로도 정상에 오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李萬基로부터 받은 충격이 너무도 큰 때문일까. 李는 지난 4월하순부터 직장을버리고 오직 씨름연습에만 몰두하고 있다. 李重根씨(동아대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東亞大 선수들과함께 매일 훈련을한후 3시간동안 별도로 체력을 다듬고 있다.

천하장사대회 예선서 탈락, 8강에 오르지못했던 강호 洪顯旭도 파이팅을 보이고있다. 엉덩이 종기를 수술했지만 연습에는 지장없다는것. 소속회사의 각별한 지원을 받아 정상 컴백을 다짐하고있다.


◇李萬基

◇洪顯旭

체급별경기서 李萬基를 누르고 메인이벤트인 천하장사결승전에서 2승3패로 타이틀을 놓쳤던 崔旭珍(23·경상대)은 평소 훈련량이 가장 많은선수. 『잠자고 밥먹는 시간외에는 뛴다』고 측근에서 전한다. 田在圭코치밑에서 하루6시간씩 강훈을 계속하고 있으며 大邱대회서 전재를보여주겠다고말한다.

이밖에 張志泳(21·인하대) 張湧徹(24·단국대)孫相柱(21·영남대)등도 각대학서 맹훈련중이다.

金旭培(21·영남대)는 삭발을한후 본선진출을 위해 땀을쏟고있다.

제2회민속대회 상금은 4천4백40만원. 4체급에서 6명의선수가 겨루는 1진 靑龍의 경우 1위3백만원, 2위2백만원, 3위1백50만원, 4위1백만원, 5위80만원, 6위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진인 白虎는 4체급 순위에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되며 이번대회서 처음 뽑는 신인8명에게도 20만원씩 상금을 지급한다.

토너먼트로 열리는 신인선발대회서는 각체급별로 2명씩, 8명이 선발되는데 6월에도 이방법으로 신인8명을 뽑은후 7월에 白虎 각체급 5, 6위등 24명이 함께 겨뤄 체급진출과 순위를 정한다. 신인들은 체급진출이 좌절돼도 오는9월 열리게될 천하장사대회에 출전할자격을 갖는다.

민속씨름협회는 3개월마다 경기결과를종합, 靑龍 白虎를 교체하며 우수신인도 각체급별로 2명씩 白虎선수자격을 부여할계획이다.

한편 3전2선승으로 승자를 뽑던 경기운영규칙을 개정, ①첫판을 이기고 2회, 3회 제한시간(5분)이 승패없이 경과되면 첫판 승자를 승리로하고 ②1회와 2회를 승패없이 제한시간을 넘기면 3회승자를 승리로 ③1회, 2회결과 1승1패일경우 3회서부터는 승부가 결정될때까지 경기를 계속토록했다. 이같은 규정은 경기시간을 단축하기위한것이다.

【安泰煥기자】

張吉山

黃晳暎 作 <1745>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5)

황회가 말하였다.

『칠월 그믐 이틀전인 스무 여드레에 날래고 도성 지리에 밝은 이들과 해서 강원의 군사들과 체결하여 서로 낯익은 사람들이 섞내로들어갑니다. 살주계의 이서방은 파주 전생이의 전갈을받아 해서 병력을 혜음령에 묻어 두었다가 그믐 밤에 복혹을타고창의문을부수며 들어오게 되오. 강원도 병력은 따로이 삭녕 전서방과 연결이 있으니 되었고, 삭녕 양주 연천 영평 동지의 사람들은 그믐날 대우(大雨)군호가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집결하여 그대로 양주목을 점령하고 수유현을넘어 혜화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대문을 모두 장악할것이요』

여환이 물었다.

『어디에 모이는것이 좋겠소?』

여태껏 아무 말도 않고 있던 김돌손 노인이 뒷전에서 말하였다.

『삭녕 연천 영평서 오는 이들은 강을 건너야만할 것이니, 이쪽 우리동네 앞 오거리가 좋겠군요. 예서 읍내까지는 사십리지만 산으로돌러싸여 좀처럼 눈치 채지 못할거요』

『옴, 대전리(大田里) 오거리 말이군』

모두들 좋다고 하였다. 여환이 말하였다.

『부서를 정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미륵도의 상좌들과 대리 명부가 있으니 부서를 정한뒤에 논의하여 임명하면 따르기로 하지요. 이제까지 결안이된것은 한양으로 먼저 입성할사람들의일과 양주목을 점령하고 뒤에 입성할 일의 두 가지입니다』

정원태가 말하였다.

『여환스님과 황대덕은 처음부터 해서를 내왕하셨으니 먼저 입성하시오』

『용녀부인은 꼭 가야합니다. 해서 군병과 강원 군병의 합대의 표적입니다』

『그럼 용녀부인하고… 도성 지리에 밝고 무용이 있는 자로, 시동이, 또 정호명 정만일사촌형제, 기병 다니던 정대선, 오경립 오계원 형제 등이 상번을 다녔고 향도들중의 상번병 출신들을 움직일 수가 있소이다』

다시 의논이 중구난방이더니 황회의조카 이원명이 추가되었고 중길이네 살주계의 주인가를 연결할 영길이와 해서 노비들과 연결된 말립이가 따라 가기로 되었다.

그리고 정원태가 영평 포천의 사람들을 휘동하여 뒤에서 움직이기로 하였으니, 이원명의 아우이며 안협상수리에서 전성달과 해서를 연결하는장소로 제집을 내주었던 이정명이 그의 막내 익명이와 더불어 삭녕 장포인을 휘동하여 대전리 오거리로 내려오게 되었다. 시동의 동무가 되었던 숯막주인 이시흥과 성남은 상번병들을 이끌고 대전리로 오게되었고 포천 난전꾼들은 영평동촌서 내려오는 그들과합대하여 양주로 나아가며, 시내비골 사람들은 젊은방귀석이 인솔하여 양주로향하는데 원태는 이들을 순서대로 포치하고 지시한뒤에 전(田)허(許)두 아전과 이철신을 데리고 양주목에 자리를잡아 민심을안돈시킨다.

「빈대떡」과「부침개」

▣ 빈자떡, 빈대떡, 부침개, 지짐, 소댕떡, 전병등의 떡은 같은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서울 문래동 조병국】

▣ 빈자떡은 녹두를 맷돌에 갈아서 번철에 부쳐 만든 떡으로 빈대떡과 같은 말이며, 녹두전병은 빈자떡의 틀린 말입니다.

부침개란는 말은 저냐, 누름적따위를 통틀어 일컫는말이고 지짐은 빈대떡의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소댕떡이란말은 틀린 말이며 전병은 전병의 잘못된 말로 전병(煎餅)은 부꾸미의 한자어입니다.

우리말 상식 <질의환영>

◇이런 말을 아십니까?

▲설면하다＝자주 만나지 못해 좀 설다. 예＝영수를10년만에만났더니설면하더라

▲섬진놈 며진놈＝어중이 떠중이.

▲두남두다＝자기 마음에 드는 편만 힘써주다.【校正部】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61>

광야(曠野)의 소리 ①

그날, 1월5일 아침, 준호는 김갑재경사의 호의로 경찰서를 나올수 있었다. 그 날카로운 눈에 완강한 얼굴을 지닌 형사의 이름이 김갑재였던 것이다.

그는 우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달렸다. 일본에 있을 때만해도 그런줄을 몰랐는데 경찰서취조실에서 왜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났던것인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언제나 패배의 지친 날개를 접고 돌아올때 포근한 안식으로 감싸주던 집이었다. 어머니는 활달한 개화여성이었고, 아버지는 젊어서 열심히 일한 대신 여유있는 여생을 즐기는 로맨스 파파였다. 모든 절망도 울분도 그를 가운데 있으면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인생을 초조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의 교훈이었다. 인생은 오직 한번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는 것이었다. 인생은 생각처럼 좋은 것도 아니며 또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인생을 사랑하라. 모든 아름다운 것도, 모든 미운 것도 사랑하라. 모든 즐거운 것도, 모든 슬픈 것까지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인생이 너를 사랑하리라.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훌륭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탐험가보다도 도전적인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그 멋진 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소리로 아버지부터 찾았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내다보는 것은 힘없는 얼굴의 어머니뿐이었던 것이다.

『어머니, 아버님은?』

준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짐을 놓고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거기, 아랫목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고,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아버님?』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저

『으……으……』

소리를 내며 손만 휘휘 저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머니?』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단다』

『중풍이요? 아니, 그런데 왜 저에겐 알리지도않으셨나요?』

『외국에 나가있는 자식에게는 본래 집안의 우환을 알리지 않는게 도리라며 한사코 연락을 못하게 하셨단다』

머리맡에는 아버지의 필적이 담긴 메모지가 수없이 흩어져 있었다. 말을 못하니까 필담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래, 어느정도이신가요?』

『왼쪽 몸은 모두 마비란다. 손도, 다리도, 혀까지도…』

중풍병이 약도 없는 저주의 천형(天刑)이라는것을 준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있지않는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무얼 잘못했길래, 그는 방바닥을 손으로 치고 있었다.

名人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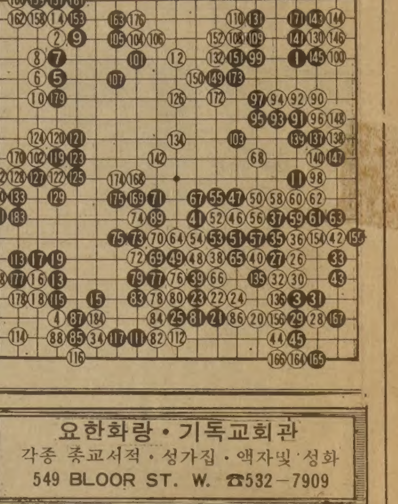
제14기

第16局 總譜 1-84手完

白(7段)徐奉洙〈4勝1敗〉

黑(4段)李相澈〈1勝4敗〉

(각5시간·덤5집반)



【白不計勝】徐7단은 이제 4승0패인 張秀英6단의 뒤를 여전히 바짝좇게되었다. 현재 2국을 남긴 張6단이 姜勳4단에 질경우는 똑같은 4승1패가 되므로 마지막 한판이 곧 결승전 이지만 이겨서 5승0패가 되면 徐7단은두판을 연승해야 되는 불리한 입장에서 싸워야 한다.

어느쪽이건 徐·張의한판은 올해의 도전권이 판가름되는 중요한고비인데 단지 전번王位戰재결승을 張6단에게 패한바도있어서 徐7단은 새로운각오로 입할것임이 틀림없다.

이바둑도 물론 徐7단에게는지지못할 한판이었고 李4단인즉 승패가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부담감없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내용의것을 만들지 못한점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白、순탄한 승리

그야 시초에는 필승의기백으로 선제공격을 가한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작전을 실패한뒤는 걷잡지 못하고 패배의길을 줄달음쳤다.

결론적으로 우하의 黑35가 시기상조였다. 이곳싸움에서 黑55, 57이 올바른 수순이긴하나 이경우는 그냥57에 잇고 이하 白64때 黑55대신 56자리를 끊어서 싸워야했다.

또黑73이 결정적패착. 이로인해 白76이하86으로 하변이 죽어서는 승부결정이다. 그뒤89는 139에서 공격을취할 곳이며 103은152가정수. 黑111이후는 두어보았을 뿐이다.

【一凡】

종교서관
성경, 찬송가, 각종 서적 714 Bloor St. W.
성화, 성가테입 각종 설교테입 Tel.: 535-1920

교 회 안 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떠날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얼)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수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10: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얼	423-9880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5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 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아 리 랑 식 당 일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 Heating, Cooling & Electrical
•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일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페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Dishwasher 급구함
월~금(AM11:30~PM2:30)전화문의는 2:30이후 요망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1,000마리에 $25
전화 : 766-8876

경험있는 남·녀 동력재봉틀(Power Sewing Machine) 작동하실분 구함.
전화 : 533-7172

주말 버라이어티 스토어
캐쉬어 구함(Etobicoke 지역)
전화 : 231-7944(가능한한 오전중 연락)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파크 Area.
전화 : 762-6578.

조그만 가게 맡아서 하실 분 구함.
전화 : 466-9864 Mr. 리

도넛숍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Full or Part Time
861-1521(가게), 222-3877(집)

훌타임 웨이트레스 급구함
KATSURA 일본식당
전화 : 960-9035 Mr. Honda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유경험자, 당일 페이.
전화 : 466-9864, Mr. 리

Store 경험있는 여자 Cashier 급구함.
전화 : 532-9638
(저녁 9시 이후 전화 요망)

도넛숍에서 밤일하실 훌타임 또는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끝.
전화 : 282-0634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 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매 매

큰 몰안에 있는 선물센타(Gift Shop) 급매.
리스 1992년까지. 여자 혼자 운영가능.
전화 : 633-7479

특별 Dieter's Tea 판매중.
중국처방, 화공약품 가미안한 자연록차.
전화 : 656-8080 (체중감량 즉효)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멀안에 있는 Naturalfood No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멀.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멀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터숍급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1에어콘디쇼너 급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랙 매매. 전화 : 763-1358.

2 베드룸 딸린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도넛숍 팝니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버라이어티가게 급매(건물포함)
가족비지네스로 적당.
버링톤지역 전화 : 1-639-7322(Mrs. Best)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5,5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급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딸린 건물매매. Asking $259,0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리·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1) 드라이 크리너 팝니다.
좋은 장비. 매우 좋은 수입.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아스킹 : $13만5천.
2) 레스토랑 150석. L.L.B.O.
좋은 리스. Banquet Eat-in. Take-out 써비스.
아스킹 : $82,900.
Mercury Realty Ltd.
전화 : 492-9031. Waymond Tam.

드라이크리닝(Depot) 급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Grocery Store Business 급매(좋은 전망)
Asking $8,900. Call. Edmund.
Jony Jrustwell Realty Inc. 596-8170

Small Plaza 급매. Variety Store, Pizza, Video Shop 년수입 3만2천 4백. 15 Miles Toronto 북쪽
전화 : 1-519-941-8318(5시 이후)

스토아 급매. Asking $39,900+Stock
Kingston Rd.×Markham(Scaboro.)
전화 : 267-2292

Tuck Shop 팝니다. (오크빌지역)
연매상 17만불. 권리금 $2만9천 + 스탁.
전화 : 844-5719(오전 10:30이전, 또는 오후8시이후)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급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그로서리 Store 매매. 주매상 $7천($1만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50Km. 전화 : 1-852-7907

아파트, 가게딸린 빌딩 팝니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피아노, 소파, 디쉬워셔, 월유닛 팝니다.
전화 : 661-4581

도시생활에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맑은 공기와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해답이 있읍니다.
써비스 스테이션-레스토랑-New 3 bedroom home
1/2 Million in Sale. asking : $22만5천
전화 : 705-636-5952(오전10시~오후4시)

매트리스가게급매. 낮은 렌트.
가게가 크고 건조지하실 있음. Bloor & Christie
전화 : 531-1730(오전10시~오후2시) or 656-5765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주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Gift Store 급매.
Bloor & Bathurst 지역.
전화 : 536-6590

후렌차이스 스토아 급매.
주매상 $7,500. 권리금 $19,500+스탁.
캐쉬원함. 전화 : 223-4748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야마하 피아노 세놓읍니다.
최근 조율됐음. 월 $30.
전화 : 536-8262 오후7시이후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티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0-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소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